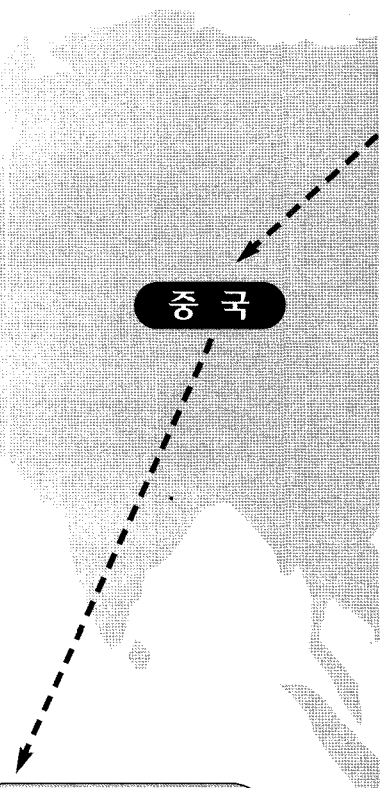


유럽

EFSA, 꿀벌피해 연관성 연구결과 발표

유럽 식품안전청(EFSA)은 특정 농약이 꿀벌군집의 피해와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 위탁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의하면 고농도의 농약사용이 미국내 꿀벌 군집 붕괴현상(Colony collapse disorder : CCD)이나 유럽의 겨울철 벌집 피해와는 연관성이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러 농약사용으로 인한 상승효과와 치사량 이하 약량의 만성적 노출에 따른 의문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결론 지었다.

또한 과학자 단체들도 꿀벌 피해는 경작형태, 기후, 화학물질 및 병원균을 포함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데 동의하고, 특히 기생충, 바이러스 또는 박테리아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군집 피해에 중요한 요인으로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2009 중국 농약산업계 주춤

중국 주식시장은 2009년도 농약회사의 실적에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총 950개의 농약회사 중 2009년 11월초까지 122개사가 손실을 보았으며, 손실액은 44억9천8백만위안(6천6백만달러)이다. 상장사 8개사 중 4개사는 이익이 감소 되었으며 1개사는 손실이, 3개사는 이익이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글리포세이트(glyphosate)의 가격하락이 다수 회사의 수입 감소에 주요 요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의 가격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하락이 시작되었는데, 그 원인으로는 과잉 생산에 기인한 것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또 분석자료에는 지난해 하반기 글리포세이트의 톤당 가격이 평균 약 2만2천위안(3천2백달러)에서 3만위안(4천4백달러)에 달하여 2010년도에는 글리포세이트 생산업체들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농약회사 M&A 가속화

중국 농약산업의 중요한 원동력이 된 중국 기업 인수 합병이 올해에는 2009년보다 더욱 활성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신문 AgriGood Herald사가 보도했다. 지난해 9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Agrochem 엑스포에서 농약산업계의 자금 조달 및 인수 결과에 따라 여러형태의 기업인수합병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협상 진행중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2015년까지 중국 농약회사의 30%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 산업 정보기술위원회(the chinese ministry of industry and information technology) 상업은행이 합병 또는 구조조정을 희망하는 농약회사에 자금지원을 확대토록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닛산, 티플루자마이드 매입

닛산케미칼은 다우아그로사이언스의 티플루자마이드(thifluzamide) 사업권을 인수하고, 지난해 6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티플루자마이드를 기본으로 하는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다우아그로사이언스는 벼 못자리 상자에 처리하는 일부 조합제품에 대한 일본 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인수로 닛산은 벼, 감자, 잔디 분야의 사업을 강화하는 반면, 다우아그로사이언스는 우선순위 타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다우아그로사이언스의 제품가치를 극대화하는 미래 성장전략의 일환이라고 글로벌작물사업부 부사장은 언급했다.

미국

EPA, 등록 검토추진 확대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10개 농약을 추가로 등록 검토 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기초 계획안을 발표했다.

관련 원제는 살충제 cyphenothrin, esfenvalerate, propoxur와 thiodicarb, 살서제 fenbutatin oxide, 제초제 difenzoquat 그리고 dibromide 그리고 살균제 azoxystrobin, metalaxyl, metalaxyl-M이다. 검토는 2015년에 완료되며, 그 중 cyphenothrin과 esfenvalerate는 2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